

고급 휘발유 소비 19% 증가

석유협회, 1/4분기 17만636배럴 달해 ... 보통보다 174.39원 비싸

고유가 부담으로 휘발유 소비가 주춤하고 있지만 수입자동차가 늘어나는데 힘입어 리터당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는 고급 휘발유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보통 휘발유 국내 소비는 1469만3000배럴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지만 고급 휘발유는 17만636배럴로 무려 18.9% 확대됐다.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5월12일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28.74원으로 보통 휘발유 1754.35원보다 174.39원 비싸다. 또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2000원 넘게 판매하고 있다.

고급 휘발유 소비는 2004년에 전년대비 55% 증가한 이후 2005년 47%, 2006년 67%, 2007년 4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정유업계에서는 고급 휘발유가 보통 휘발유에 비해 가속성이 크고 옥탄가가 높아서 엔진 기능에 도움을 주며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판매처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보통 휘발유와 달리 운반비용 절감을 위해 정유기업간 제품 교환을 하지도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차가 확대되면서 고급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고급 수입자동차는 고급 휘발유의 높은 가속성에 맞추어 제품을 내놓고 고급 휘발유 주유를 권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유가 영향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어서 소비 증가율이 2007년 상반기 59.9%에서 하반기에는 38.8%로 내려왔고 2008년 들어서는 월별로 10-28%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의 소비량이 1/4분기 각각 9만7652배럴과 3만572배럴로 총 12만8224배럴을 기록하며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14>